

〈방랑자〉(*The Wanderer*)에 나타난 화자의 정체성 연구*

이 동 일**

차 례

1. 서론
2. 본론
 - 2.1. 주제를 형성하는 영웅주의 요소
 - 2.2. 주제의 일관성:
일인칭 화자의 자각과 제 3의 화자의 위치
 - 2.3. 일인칭 화자의 정체성과 제 3의 화자와의 관계
3. 결론

1. 서론

10세기 후반기에 수서본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랑자>(*The Wanderer*)는 서정시풍이 가미된 비가(elegy)로써 독특한 문학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방랑자>에 나타난 화자의 정체성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가 개인의 상황 혹은 경험을 넘어선 보편적 혹은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경험의 중심에는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다양한 예술적 기교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의 핵심적인 주제는 인간 세계에 대한 무상이지만, 이 핵심 주제에 도달하는 과정이 한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 -- 격언(gnome), 고전적 배경, 이교도 및 기

* 본 논문은 200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독교--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시의 중심이 되는 화자의 사회, 도덕적 가치관 내지 행동규범이 어떤 요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작품의 이해를 위해 의미 있는 고찰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독백을 주관하는 일인칭 화자(ic, 'I')가 다름 아닌 코미타투스(*comitatus*)라는 영웅주의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항해를 통해 체험한 자신의 자각이 시의 전체를 주관하는 또 다른 화자의 자각과 공통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법에서 발견되는 제 3의 화자는 영웅주의를 신봉하는 이교도인이 아니지만 자신의 궁극적인 메시지(천국의 하나님께 귀의)를 전달하기 위해 일인칭 화자의 경험--코미타투스의 붕괴로 인한 생의 허무함--을 기독교 차원으로 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인칭 화자의 정체성 규명에 있어 영웅주의 요소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화자의 정체성 규명과 핵심 주제의 설정에 있어 영웅주의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 볼 것이다.

2. 본론

2.1. 주제를 형성하는 영웅주의 요소

대부분의 19세기 학자들은 <방랑자>가 이교도 전통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시에서 언급되는 기독교적 요소는 기독교 수도원에 있는 후기의 필사자들에 의한 가필(interpolation)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학설에 대해 로렌스(W. W. Lawrence)는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방랑자>는 일관성 있는 통합성을 보이고 있으며 시 전문이 한 시기에 완성 되었다고 주장한다(467). 시의 통합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 시의 주제와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쏠리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시의 주제연구에 있어서 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불일치 즉, 시 흐름의 급격한 중단, 사과의 급격한 변화, 시 분위기의 변화 등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는 시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교도 요소와 기독교

교적 요소가 혼합이 되어있지만 효율적인 통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Kershaw 4), 림블(T. C. Rumble)같은 학자는 세속적인 이교도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의 불일치성은 시인의 의도적인 병치(juxtaposition)기법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세속의 무상함 혹은 허무(transience)와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천상세계의 굳건함과 불변의 안정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시에서 다루고자하는 통합적 주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Rumble 227).

시의 시작과 끝 부분은 분명히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나 이러한 기독교적 자각에 다다른 과정의 매체로써는 이교도 가치관, 특히 영웅주의 시에서 보여 지는 코미타투스(*comitatus*)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고찰은 화자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써 시의 주제는 물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중 화자의 가능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간주한다.

시에서 다루어지는 ‘*Ubi sunt*’구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영웅주의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핵심 주제인 인생 혹은 세속의 허무함을 깨닫는 부분에서 시인은 고전시의 전통을 따라 ‘where are’라는 형식적인 표현(formulaic expression)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 어휘들은 다름 아닌 영웅주의 사회인 코미타투스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임을 알 수 있다.

Hwær cwom mearg? Hwær cwom mago?

Hwær cwom mabþumgyfa?

Hwær cwom symbla gesetu? Hwær sindon seledreamas?

Eala beorht bune! Eala byrnwiga!

Eala þeodnes þrym! (*Beowulf* 92-95a)

[Where has the steed gone? Where has the man gone? Where has the giver of gifts gone? Where is the seats of feasts? Where are the hall joys? Alas the bright cup! Alas the mailed warrior! Alas the glory of prince!]

위 구문은 영웅주의 사회인 코미타투스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과 갑옷을 걸친 사람(용사), 보물을 하사하는 자(군주), 향연장의 좌석, 술잔은 유형의 요소로써 코미타투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홀의 기쁨과 군주의 영예는 다름 아닌 영웅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인 것이다. 홀인 향연장은 영웅주의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진정한 영웅을 가름하는 영웅적 맹세(vow)가 바로 이 향연장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군주는 용사들에게 보물을 하사하며 휘하 용사들의 경제, 사회적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즉 향연장은 단순한 향연의 의미를 넘어선 영웅주의 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핵심 공간이 되는 것이다 (Frankis 260). 술잔 역시 군주의 하사품으로 간주되어 군주의 관대함을 암시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향연장의 기능은 다음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gemon he selescgas and sincþege
 hu hine on geoguðe his goldwine wenede to wiste (“The Wanderer”
 34–36a)
 [he remembered hall-retainers and receiving of treasure, (calls to
 mind) How in his youth his lord entertained at the feast]

여기에 등장하는 요소들-- 보물로써 용사들을 위로하는 군주, 보물을 받는 용사들, 군주의 관대함이 발휘되는 향연장, 관대함의 증거물인 보물--은 다름 아닌 영웅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요소들이며 이의 성공적인 결합은 코미타투스의 결속을 의미하며 동시에 번영을 암시하게 된다.

시의 곳곳에 일관성 있게 배치된 영웅주의 요소들은 이 시의 방랑자가 영웅주의 사회의 구성원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인은 인생무상 혹은 속세의 허무라는 시의 주제를 끌어내는데 있어 이교도 집단인 코미타투스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의 부활과 불멸을 믿는 기독교 전통과 달리 사후의 영생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 영웅주의 사회에서는 살아생전의 영웅적 무용의 업적을 통한 명예

(dom, 'glory')를 갈망하게 된다. 영웅적 무용은 후세인들에게 전수되어 세세 토록 회자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불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웅적 무용과 연결된 명예는 다른 아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불멸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영웅의 업적은 시인(scop)에 의해 향연장에서 노래로 읊어지게 되며 향연장에 참석한 용사들은 시인의 노래에 고무(鼓舞)되어 자신도 영웅적 업적을 이루겠다는 결의(맹세:vow)를 토로하게 된다. 향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사들의 맹세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의 표출로써, 신중함보다는 즉흥적인 결단에 근거하게 된다. 군주와 종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해질 때, 혹은 치욕적인 굴욕에 직면하여 토로(吐露)한 목숨을 건 즉각적인 행동의 결단은 때론 전략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무책임함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Parks 124).

시인은 시의 초반부에서부터 이러한 영웅주의 행동철학에 위배되는 또 다른 도덕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개의 가치관을 병치(並置)시켜 속세의 허무함이라는 궁극적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된 장치로 간주된다. 시인이 의도하는 또 다른 도덕관은 신중함과 인내심을 근간으로 하는 덕목으로서 이는 기독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의 교훈적인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교훈적 도덕관은 다음의 예문이 입증하듯이 시의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1. Therefore glory-desiring ones often bind firmly in their breast a sad thought. (*The Wanderer* 17-18)
2. A wise man must be patient, he must not neither be too passionate, nor too rash of speech (**heroic vow, pledge**) (*The Wanderer* 66)
3. A man must wait when he utters a vow until he may well know whether the thought of the heart may turn... (*The Wanderer* 70)

시의 핵심 주제인 허무 내지 인생 무상함은 다른 고대영시 <페허>(The

Ruin), <바다의 항해자>(*The Seafarer*)에서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영웅주의를 표방하는 <베오울프>(*Beowulf*)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흔히 <노부의 애가>(“The Old Father’s Lament”: *Beowulf* 2440–2458)라 불리는 부분에서 구체화 되는 속세의 무상함은 아들을 사고로 잃은 늙은 군주가 아들이 차지했던 궁중의 향연장을 바라보면서 깊은 회한에 빠지면서 구체화 된다. 코미타투스스의 완전한 붕괴는 시에서 노리는 세속의 무상과 직결되는데, 이 역시 영웅주의 사회의 양상을 시의 통합적 주제를 위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Ongietan sceal gleaw hæle hu gæstlice bið
þonne eall þisse worulde wela weste stonedð,
winde biwaune geond þisne middangeard
hrime bihrorene, hryðge þa ederas.
Woriað þa **winsalo**, waldend licgað
dreame bidrorene; duguþ eal gecrong
wlonc bi wealle (*The Wanderer* 73–80a)

[A prudent man must understand how terrible it will be when all the prosperity stands as now in various places through this middle-earth, walls stand blown on by the wind, covered with hoar-frost, buildings storm-swept, **wine-halls crumble**, rulers lie low, deprived of joy, all the proud army has fallen...]

주연장(**winsalo**, ‘wine-halls’)의 파괴는 다음에 이어지는 ‘용맹한 용사들의 쓰러짐’ 함께 영웅주의 사회인 코미타투스스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고 있다. <방랑자>에서는 공간의 이미지를 통하여 속세의 허무함을 노래하는데, 이러한 기법은 <방랑자>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항해자>(*The Seafarer*), <폐허>(*The Ruin*) 등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기능을 상실한 공간의 이미지--이 부분에서는 향연장이 영웅주의의 핵심 공간으로 이용됨

--는 시 전체에서 노리는 세속의 허무함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요소들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코미타투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각의 과정--영웅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덕 관에 충실하고자 하는 방랑자(화자)에서 그러한 사회의 한계를 깨닫고 또 다른 가치관을 지향하는 현자로의 전환--을 그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미타투스를 둘러싼 이러한 공간의 이미지, 즉 기능을 상실한 이미지는 시의 초반부, 중반부 및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의 핵심 주제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 eðle bidæled, 'deprived of homeland' (*The Wanderer* 20), sele dreorig, 'grieving over the hall' (*The Wanderer* 25), woriað þa wínsalo, 'wine-halla crumble' (*The Wanderer* 78), hwær cwom symbla gesetu, 'where has the giver of gifts gone' (*The Wanderer* 93).

여기서 구현되는 이미지는 다름 아닌 기능을 상실한 공간의 이미지는 110행에서 보여지듯이 시에서 노리는 총체적 공간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Eal þis eorþan gesteal idel weorþeð, 'The whole foundation of the earth becomes idle(useless)' (*The Wanderer* 110).

사라진 공간에 대해 강렬한 이미지는 다음의 행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Hu seo þrag gewat,
genap under nihthelm swa heo no wære. (*The Wanderer* 95-96)
[How the time departed, grew dark under the cover of night as if it had never been.]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한 사라짐(disappearance)의 이미지는 시에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속세의 허무내지 텅없음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법 역시 코미타투스를 둘러싼 -순식간에 사라진 용사들의 묘사에서도 엿보인다.

hu hi færlīche flet ofgeafon, modge magbegas, (*The Wanderer* 61–62).
[how they, the proud retainers, relinquished(died) the hall]

2.2. 주제의 일관성: 일인칭 화자의 자각과 제 3의 화자의 위치

후페(B. F. Huppe)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시의 소재와 주제를 둘러싼 일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다(Huppe 164). 그들은 *Forþon*, 'Therefore'로 시작하는 64행을 기점으로 시의 전반적인 톤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64행 이전까지는 이교도 사회와 도덕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64행에서부터는 이교도가 아닌 교훈적 혹은 기독교적 요소 등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주제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64행을 기점으로 전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64행 이하에서 다루어지는 속세의 무상 혹은 허무함 등의 주제가 58행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역시 *Forþon*, 'Therefore'로 시작된다.

Forþon ic geþencan ne mæg geond þas woruld
for hwan modsefa min ne gesweorce,
þonne ic eorla lif eal geondþence, (*The Wanderer* 58–60)
[So I can not think why, throughout world, my mind **shouldn't grow dark**
when I think over all the life of the warriors.]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ic, 'I')는 다름 아닌 8행에서 시작되는 독백(monologue)의 주인공인 화자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영웅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해있던 코미타투스가 붕괴하면서 또 다른 코미타투스를 찾아 항해를 떠났던 방랑자인 1인칭 화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 바다의 혹독한 항해--을 통해 생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자각--생에 대한 극히 회의적인 견해--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코미타투스를 갈망하는 화자의 의도는 다음의 행에서 극명하게 구체화 된다.

sohte sele dreorig sinces bryttan, hwær ic feor opbe neah findan meahthe,
[(I) sought the giver of treasure, grieving over the hall, where I could find
far and wide (the one)] (*The Wanderer* 25–26).

하지만 64행을 기점으로 하는 이러한 주제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화자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6행에서 사용되는 swa, ‘thus’의 등장이다. 이는 8행부터 ic, ‘I’로 시작되는 독백을 인도하는 도입부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화자로 간주되어 진다(Leslie 120). 이 제 3의 화자는 독백 속의 ic와 비교해 볼 때 위에서 다루었던 핵심 주제인 생 혹은 속세의 무상함에 대한 자각의 견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제 3의 화자는 시작과 끝 부분에서 일관된 어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ar, ‘grace’의 언급에서 두드러진다.

1) Oft him anhaga are gebideð Metudes miltse, (*The Wanderer* 1–2a)
[Often the wanderer experiences(awaits, expects) God’s grace]

2) Wel bið þam þe him are seceð, (*The Wanderer* 114)
[Well is the man who seeks grace]

Ar, ‘grace’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 3의 화자의 말은 시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거듭 반복됨으로써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의미한다. 레슬리(Roy. F. Leslie) 교수는 Metud를 ‘lord’로 해석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기독교 하나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BT).¹⁾

고대영어 metan, ‘measure’, ‘judge’를 어원으로 하는 metud는 <베오울프>(Beowulf)에도 나타나며 천지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방랑자> 1행에서 언급되는 metud가 기독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절대자를 암시하는 것인지 그 명확한 구분은 시의 전체 흐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시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제 3의 화자가 시의 끝 부분을 장식하는 화자와 일치한다면 여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이 1행에서 언급되는 metud는 기독교 하나님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1) metud는 ‘ruler’ 혹은 ‘the ordainer of fate’로 풀이되며 이것은 기독교 이전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Wel bið þam þe him are seceð,
frofre to **Fæder on heafonum**,

þær us eal seo fæstnung stondeð.' (*The Wanderer* 114–16)

[Well is the man who seeks grace and comfort from the Father in Heaven, where all the security stands for us all.]

Fæder on heafonum, 'Father in Heaven'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제 3의 화자는 기독교적 설교문의 형식으로 시를 종료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제 3의 화자는 아마도 필사자인 기독교 수도사이거나 기독교 전통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당대의 지식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끝 부분의 기독교 설교를 나중의 가필(加筆)로 간주하지만 본인의 견해로는 시인의 의도적인 구성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 된다(Malone 204). 끝 부분의 기독교 설교문은 분명 시의 전반적인 톤과 많은 차이점을 이루고 있다. 즉, 끝 부분이 단언적인 설교풍의 어법과 함께 앞부분에서 보여 지는 슬픔, 허무, 외로움 등의 정서와 크게 차이를 이루기 때문이다. 제 3의 화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metud의 의미는 기독교 하나님의 가능성을 증대시키지만, 논의 핵심은 이러한 기독교 하나님 혹은 미지의 절대자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이어서 등장하는 일인칭 화자인 방랑자--가 코미타투스 도덕관을 배경으로 하는 이교도인이라는 점이다. 기독교 문화와 거리를 두고 등장하는 이교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 문화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거리감 때문에 시인은 시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metud에 중립적 의미를 투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비록 시인은 기독교 하나님을 상정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규범의 간극 때문에 의도적인 애매모호함을 설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모호함은 계속되는 wyrd, 'fate', 'destiny'의 의미에서도 반복된다: "wyrd bið ful aræd" (fate is fixed, *The Wanderer* 5).

5행에서 언급되는 wyrd가 이교도 개념인지 혹은 기독교적 개념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 하나님이 'wyrd의 주관자'로서 고대영시에 자주 언급된다는 것이다. Wyrd는 'become', 'happen', 'to be'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weorðan에서 기원되며(BT), 거역할

수 없는 힘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불가항력의 힘은 영웅서사시 <베오울프>에서도 나타난다: “Gæð a wyrd swa hio scel!” (Fate goes always as she must!, *Beowulf* 455b).

<베오울프>에서 언급되는 wyrd는 다름 아닌 이교도적인 운명의 개념이지만 기독교 시인에 의해 기독교적 색채가 가미된 하나님의 섭리(providence)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진다. 에르쯔그래버(Erzgraber)에 따르면 <방랑자>의 시인은 fatum을 하나님의 섭리(providentia)에 포함되는 Boethius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 한다(Book IV, *De Consolatione Philosophiae*). 운명(fate)이 섭리(providence)의 영역에 종속되어 있을 뿐 부분적으로 섭리와 일치한다는 견해는 <방랑자>의 이해에 많은 시사성을 부여한다. Wyrd가 언급된 6행 다음에 이어 지는 일인칭 화자는 다름 아닌 wyrd의 개념을 신봉하는 영웅주의 사회의 일원이다. 그리고 그의 독백에서 보여 지는 자각은 생의 깊은 통찰에서 느껴지는 무상함이지,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mercy)나 섭리와는 거리감이 두고 있다. 즉, 시인 혹은 제 3의 화자는 이러한 일인칭 이교도인의 도덕률을 감안하여 시의 서두에 metud와 wyrd를 설정함으로써 의도적인 애매함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방랑자인 일인칭 화자는 제 3의 화자와 매우 비슷한 자각--속세의 무의미 혹은 허무--을 경험하지만 그의 자각이 3인칭 화자가 의미하는 기독교적 자각과 일치하는지 여기에는 명확한 문맥상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시의 흐름을 주관하는 제 3의 화자와 일인칭 화자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상정할 수 있다. 시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제 3의 화자가 이교도 세계의 가치관이 덧없음을 알리기 위해 한 방랑자--코미타투스 사회의 붕괴로 다른 코미타투스를 찾기 위해 바다 항해를 하는 이교도 용사--를 가상 혹은 실제 인물로 설정한다. 다른 하나는 둘 의 자각이 궁극적으로 같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독백 속의 화자와 제 3의 화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가설이다.

2.3. 일인칭 화자의 정체성과 제 3의 화자와의 관계

시의 초반부 1행에서 언급되는 anhaga, ‘solitary man’이나 6행의 eardstapa,

‘wanderer’는 6행에서 사용되는 swa, ‘thus’와 더불어 제 3의 화자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제 3의 화자의 안내로 등장하는-- 8행에서 Oft, ‘Often’ 시작되는 담화를 이끄는 주체인 화자 ic, ‘I’ 와 일치함을 보여야한다. 이러한 일치성은 다른 아닌 문맥의 일관성에서 엿보여야하는데 1행의 anhaga의 의미 분석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과 지니고 있다.

eðle bidæled, freomægum feor, deprived of a native land, far off from noble kinsmen (*The Wanderer* 20-21)

hwær ic feor obbe neah findan meahte, where I sought far and near to find (one who might feel love for me in mead-hall) (*The Wanderer* 26)

위의 문맥은 anhaga가 내포하는 의미론적 의미인 ‘외로운 방랑자’의 의미와 일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 3의 화자가 지칭하는 anhaga를 8행부터 시작되는 ic, ‘I’로 간주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맥의 일치성은 anhaga와 동격의 성질을 지닌 eardstapa, ‘wanderer’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5행에서 언급되는 wræclastas, ‘paths of exile’에서도 엿보인다. 즉, 제 3의 화자는 ‘I’ 화자의 등장 이전에 일인칭 화자의 정체성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베이틀리(Bately)교수는 anhaga를 ‘the solitary man’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the wanderer’로 풀이하고 있다. 홀싸우센(Holthausen)에 의하면 anhaga는 einsiedler, ‘recluse’의 의미를 지니며 이의 어원은 an과 haga, ‘dwelling, enclosure’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1-4). Anhaga의 복합명사는 ‘추방자’나 ‘방랑자’의 이미지로 다른 고대영시에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uthlac: 997>, <The Phoenix 347>, <Resignation 97>, <Beowulf>.

한편 고든(Ids L. Gordon) 교수는 anhaga를 ‘one who meditates alone’로 풀이하며 hogian을 haga에서 연유된 ‘enclosure’ 대신에 ‘to think’로 해석하고 있다(Gordon 125).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haga에 ‘dwelling, place’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anhaga에 ‘홀로 거하는 자: one who dwells alone’의 의미를 적용하고 있다. Gordon 교수에 따른 anhaga, ‘홀로 묵상하는 자: one who

meditates alone'의 의미는 논의되는 화자의 정체성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는 구절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된다.

Swa cwæð snottor on mode; **gesæt him sundor æt rune.** (*The Wanderer* 111)

[So spoke the wise man in his heart, as **he sat apart in meditation.**]

111행에서 언급되는 ‘묵상에 빠져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그는’(he sat apart in meditation) 구절은 제 3의 화자가 시의 서두에서 언급하는 anhaga (일인칭 ic, ‘I’)의 어원적 의미인 ‘one who meditates alone’과 그대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의 끝 부분에서 언급되는 ‘묵상에 빠져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그는’ 다름 아닌 일인칭 ‘I’ 화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역시 제3의 화자에 의해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는 공통점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의 마지막에 언급되는 홀로 앉아 있는 snottor, ‘현자(wise man)’가 시의 초반에 언급되는 anhaga, ‘방랑자’인 일인칭과 일치할 이루어기 위해서는 시의 핵심 주제인 인생무상과 속세의 허무함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가 같아야한다는 일치성을 보여야한다. 논지의 앞부분에서 이미 논의한 대로 시의 58부분에서 일인칭 화자 역시 제 3의 화자가 말하는 생의 무상함과 같은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o I can not think why, throughout the world, my mind should not grow dark when I think over all the life of the warriors, how they, the proud retainers, suddenly relinquished the hall.]

이 부분에서 보여 지는 일인칭 화자의 자각은 일인칭 화자의 정체성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8행에서 일인칭 화자로 시작되는 담화 내지 독백은 58부분 혹은 62행에서 마무리 되는데, 이 50행 속에서 우리는 일인칭 화자의 관점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8행 이전에서 보

여 지는 일인칭 화자의 주된 관점은 과거 자신이 속해 있던 코미타투스의 행복했던 시절과 현재 자신의 냉혹한 처지--홀로 떨어져 차가운 겨울 바다를 향해하는 자신의 위치--의 대조를 통해 투영되는 슬픔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58행)에서 보여 지는 자각은 앞에서 보여 지는 슬픔의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차지했던 구성원들의 사라짐과 함께 엄습되는 생의 무상 내지 허무함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자각의 견지에서 보면 일인칭 화자와 제 3의 화자의 차이점은 미비하다 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대로 문맥의 면밀한 분석은 두 개의 화자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일인칭 화자의 독백에서 고조되는 슬픔과 외로움의 정서는 <방랑자> 40행의 earnne anho(a)gan, 'the wretched wanderer'에서 극대화 된다. 이 상투어(formulaic expression)는 <베오울프>의 2368행에도 나타난다. Earm anhaga, 'a wretched solitary wanderer'는 프리지안(Frisians)족과의 전투에서 군주인 히엘락(Hygelac)을 잃고 홀로 바다로 도주한 영웅 베오울프의 외로운 처지를 묘사한 부분인데 홀로 외롭게 바다를 향해--여기선 수영--하는 모습이 <방랑자>에서 묘사된 일인칭 화자의 모습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엄격한 영웅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군주 히엘락을 잃은 베오울프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다 군주와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군주에 대한 충성 맹세--위기 시 군주와 함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를 지켜야하는 것이었다. <방랑자>의 일인칭 화자인 방랑자와의 공통점은 코미타투스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즉 코미타투스와의 결별--베오울프에서는 전투에서의 패전으로 인한 코미타투스의 붕괴, <방랑자>에서는 내란 혹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코미타투스의 붕괴--을 배경으로 장면이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earn anhaga 를 둘러싼 주제의 전개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오울프>에서는 외로운 이미지가 증폭되고 있지만 베오울프의 전설적 수영실력이 돋보이면서 군주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주제로 전환된다. 즉 영웅주의 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방랑자>에서는 <베오울프>에서와 같이 코미타투스에서 이탈된 방랑자의 이미지가 외로움과 함께 중첩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주제는 생의 무상을 향한 슬픔의 정서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랑자>에서는 일인칭 화자가 자신의 슬픔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백에서 또 다른 인물인 *earnne anho(a)gan*, 'the wretched wanderer'(The Wanderer 40)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 3의 화자가 시의 전체 주제인 생의 무상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또 다른 화자(일인칭)를 지칭할 때 *anhaga*, 'wanderer'를 도입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이는 시인의 기교적인 면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으로써 화자와 등장인물을 둘러싼 구도는 -- 시 전체를 주관하는 화자(제 3의 화자)의 등장, 제 3의 화자에 의해 등장하는 일인칭 화자인 *ic*, 'I'의 독백, 그리고 일인칭 화자에 의해 언급되는 또 다른 인물인 *anhaga*, 'wanderer', 시의 마무리와 함께 시의 최종 주제인 기독교 설교(혹은 교리)를 암시하는 구문으로 마무리 하는 제 3의 화자의 등장과 같은 다소 복잡한 구도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상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지닌 개별적인 두 화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결론

문맥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생과 속세의 허무함이라는 핵심 주제는 <방랑자>의 전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중 화자(multiple speakers) 학설을 지지하는데 훌륭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62행 혹은 64행을 기점으로 나누어지는 두 부분은 화자의 말하는 톤(tone)에서 차이를 보일 뿐 다루어지는 주제의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화자의 화술은 영웅주의 사회에서 이탈된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배경으로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톤에 치중되어 있지만 후반부 화자의 톤은 교훈 내지 설교 풍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인칭 화자와 제 3의 화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5행에서 시작되어 62행에서 마무리되는 일인칭 화자의 독백(monologue)에 드러난 화자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인칭 화자는 자신이 속해있던 코미타투스가 붕괴되어 새로운 군주를 찾아 바다를 향해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방랑의 동기와 코미타투스에 기반을 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반면 시의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제 3의 화자는 기독교 설교 형식으로 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자신이 기독교 전통을 따르거나 기독교 전통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인칭 화자의 등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의 서두에서 보여 지는 제 3의 화자는 이교도와 기독교 전통의 중간에 위치하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고대영어 *metud*, 'ruler', 'measurer'와 *wyrd*, 'fate'의 언급은 이러한 모호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두 어휘 공히 이교도와 기독교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인용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모호성은 이교도 전통에 기반을 둔 일인칭 화자를 등장시켜 자신이 의도한 핵심 주제--생과 속세의 무상함--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치로 간주되어진다. 이러한 의도는 일인칭 화자의 독백 말미에서 보여 지는 속세의 무상함에 대한 일인칭 화자의 자각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인칭 화자가 코미타투스의 도덕관(이교도 가치관)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은 일인칭 화자가 기독교인이 되어 기독교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이교도 가치관의 한계를 체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제 3의 화자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한 이교도인의 정신적 상태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즉, 62행을 기점으로 일인칭 화자의 독백이 끝나게 되자 제 3의 화자는 일인칭 화자가 체험을 통해 얻은 자각--생과 속세의 무상함--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해가면서 궁극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인칭 화자와 제 3의 화자가 다루는 핵심 주제는 주지하다시피 생과 속세의 무상함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인칭 화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영웅주의 사회의 붕괴로 인한 자신이 신봉해 왔던 가치관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허무이며, 제 3의 화자의 경우, 일인칭 화자가 터득한 생의 허무를 포용하면서 그러한 속세의 한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어 지는바 하나님의 나라에 귀의해야한다는 기독교 도덕관을 설파하는 것이다.

인용문헌

- Alexander, Michael. *Old English Literature*. London: Macmillan, 1983.
- Anderson, G. K. *The Literature of the Anglo-Saxons*. Oxford: Oxford UP, 1949.
- Boer, R. C. "Wanderer und Seefahrer." *ZfdP* xxxv (1930): 1-28.
- Bosworth, Joseph, ed. and T. Northcote Toller. rev. *An Anglo-Saxon Dictionary*. Oxford: Oxford UP, 1882-98.
- Brown, George. H. "An iconographic Explanation of the Wanderer."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lxxii (1971): 264-75.
- Dodds, E. R. *The Greeks and Irrational*.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51.
- Elliott, R. W. V. "The Wanderer's Conscience." *English Studies* xxxix (1958): 193-200.
- Frankis, P. J. "The Thematic Significance of enta geweorc and Related Imagery in *The Wanderer*." *Anglo-Saxon England* ii (1973): 253-69.
- Gordon, Ida L. "Traditional Themes in *The Wanderer* and *The Seafarer*." *RES* v (1954): 1-13.
- Greenfield, S. B. "The Old English Elegies." in *Continuations and Beginnings*. Ed. E. G. Stanley. London: Nelson, 1966. 147-72.
- Holowell, Ida M. "On the Identity of the Wanderer" in *The Old English Elegies*. Ed. Martin Green. Rutherford: Fairleigh Dickinson UP, 1983. 82-95.
- Holthausen, F. "Review of Kock's *Jubilee Jaunts and Jottings*." *Anglia Beiblatt* xxx (1919): 1-5.
- Huppe, B. F. "*The Wanderer*: Theme and Structure." *JEGP* xlii (1943): 516-38.
- Kershaw, N. *Anglo-Saxon and Norse Poems*. Cambridge, CUP, 1922.
- Klaeber, Fr., ed. *Beowulf and the Fight at Finnsburg*. 3rd ed. Boston:

- Heath, 1950.
- Lawrence, W. W. "The Wanderer and The Seafarer." *JGP* iv (1902): 460-80.
- Lee, Dongill, "Space and Feasting Hall in the Heroic Poetry." The Medieval English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2006. 241-263.
- Leslie, Roy F, ed. *The Wanderer*. Manchester: Manchester UP, 1989.
- O'Neil, W. A. *Oral-Formulaic Structure in Old English Elegiac Poetry*. U of Wisconsin P, 1960.
- Parks, Ward. *Verbal Duelling in Heroic Narrative: The Homeric and Old English Trad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P, 1990.
- Rumble, T. C. "From Eardstapa to Snottor on mode: The Structural Principle of *The Wanderer*." *MLQ* xix (1958): 225-30.
- Williams, Blanche C. *Gnomic Poetry in Anglo-Saxon*. New York, 1914.
- Wrenn, C. L. *Beowulf*. London: Harrap, 1973.

Abstract

The Narrator's Identity in *The Wanderer*

Dong-II Lee (HUFS)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1) the identifications of the first person speaker and the third person speaker,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peakers, and (3) the nature of awakenings in two speakers with reference to *comitatus* and Christian tradition.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poem is a blend of pagan and Christian element which do not readily coalesce. Numerous references to heroic society proves that the first person speaker is a member of *comitatus* and his moral value is based on the heroism. The most important concept, the binding force of society, was the *comitatus*, the mutual loyalty between lord and thane or warrior. The leader provides legal and economic protection in return for military services. Glory is regarded as immortality to the members of *comitatus* as souls in Christians.

Though there is an apparently abrupt change of thought at line 62, where the real seafaring theme ends and not very obviously connected moralizing begins, the two parts are closely linked grammatically and thematically. Both two parts share the essential theme of the transience of this worldly.

Scholars generally agree that the first half has been devoted to the experience and limitations of the individual in the clutches of adverse fortune. From line 62 the theme is now broadened in scope to include the whole of man's existence. But I believe that even in his monologue the first person speaker already reached a new state of mind in which he shows very sceptical view on the earthly life. This sort of new kind of

awakening in the first person speaker is very similar to the overall theme of transience on this earthly life, which is emphatically repeated by the third speaker. I suppose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person speaker's awakening and the subject matter dealt with by the third speaker is the scope of the theme.

Seafaring journey serves as a bridge to the wider, more universal theme of the second half of the poem, which is a homily on the transitory nature of earthly prosperity and happiness and the importance of afterlife.

Though his new perception on life surpasses the boundary of *comitatus*, the first person speaker's awakening does not develop into the theme of the changelessness and security of the heavenly kingdom, which is the major concern of the third speaker.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poet introduced a specific society, *comitatus*, as a vehicle of his poetic purpose in order to deliver his message--the transitory nature of earthly prosperity and happiness and the importance of after life.

Key Words: *comitatus*, theme of transience, universal theme, seafaring journey, *anhaga*.